현장과 시각

광주시, 메세나 활성화 나서라

김미은
문화생활부 차장

부산의 '오픈 스페이스 배'는 기업체가 기증한 배밭과 축사 등을 리모델링한 문화공간이다. 지역 철강기업은 철근을 이곳 입주 작가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울산의 풍물예술단 '버슴새'는 '울산메세나운동 추진위원회'를 통해 경남은행에서 3천만원을 지원받아 다양한 공연을 펼쳤다. (사)경남메세나협의회는 지자체 최초로 중소기업매칭펀드(기업체가 예술단체를 지원하면 액수만큼 추가 지원)를 운영중이다.

최근 취재 중 울산과 부산 등에 불고 있는 '메세나 훈풍'을 접하고 안타까웠다. 지역에서 가장 먼저 메세나협의회까지 만들었던 광주가 지금은 가장 뒤처졌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광주메세나협의회는 지난 2004년 출범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박성용 당시 한국메세나협의회 회장은 참석자들에게 메세나 배지를 달아주며 출범을 축하했었다.

하지만 광주메세나협의회의 4년 활동은 극히 미미하다. 첫 1년을 그냥 보낸 뒤 이듬해 재도약을 위한 음악회를 열었지만 이후 이렇다할 모습을 보져주지 못했다.

메세나의 확산에는 기업과 예술단체가 어디서,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공연단체들은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 후원을 요청한다. 지역기업들은 "메세나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단체 등을 후원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말한다. 이럴 때 메세나협의회는 기업과 단체의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다.

광주메세나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의회 관계자들의 역할과 함께 광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왕에 구성된 조직이 잘 굴러가도록 시가 기업과 문화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말이다.

(사)경남메세나협의회 결성에는 경남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상공회의소와 문화계가 결합,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고 올해부터 도의 지원으로 3억원의 펀드를 운영중이다.

울산은 아예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울산 메세나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 결연에 앞장서고 1억원의 예산도 확보했다.

최근 문광부가 메세나 촉진을 위해 시행중인 '문화로 모시기 홍보컨설턴트'에는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참여하고 있다. 광주상의 역시 문화중심도시에 걸맞게 '문화투자'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청에서는 기초질서 확립 운동 등 다양한 주제로 각종 회의가 수도 없이 열리지 않던가.

시가 적극적으로 만남의 자리를 만들고, 메세나협의회 관계자들,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예총과 민예총 등이 머리를 맞대 메세나 활성화를 위한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

/ mekim@kwangju.co.kr

"광운대 발언은 李당선인 실수"

BBK 특검, 오늘 오전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이명박 당선인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21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곧 해산 수순에 들어간다.

김학근 특검보는 20일 "수사 결과 발표를 내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공식 수사 종료일인 23일보다 이틀이나 앞서 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것은 당선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쪽으로 일찌감치 확실한 결론을 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5일 출범했던 정호영 특검팀은 40일 가까이 당선인과 관련한 BBK, 도곡동 땅 및 ㈜다스의 실소유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 왔지만 기존의 검찰 수사 결과를 뒤집을만한 뚜렷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민적 의혹을 불러 일으켰던 'BBK를 설립했다'는 취지의 광운대 동영상 발언, 각종 언론 인터뷰 내용은 당선인이 자신의 사업 규모를 부풀려 말하다 생긴 실수로 보고 비록 도덕적 비판의 여지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김학근 특검보는 19일 오후 기자들과의 정례 간담회 자리에서 "특검은 의혹 사항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누구를 기소해야 성공하고 불기소하면 실패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이에 따라 이주 초부터 수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특검팀은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인 24일 자정까지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 결과를 보고한다.

/연합뉴스

차명 의심 3,800개 계좌 추적

삼성특검 계열사 전·현 임원 소환 조사도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20일 삼성 전·현직 임원과 관계자 등 1천700~800여명의 차명의심 계좌 3천700~800여개를 추적 중이다.

특검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재 3천700~800여개 차명의심 계좌를 조사 중이고 일단 수사망 안에 들어온 계좌들을 중심으로 조사하면서 추적 범위를 넓힌 것"이라며 "추적해야 할 대상이 많으므로 아직 '시작 단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들 의심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실제 차명 계좌인지 아닌지를 우선 가린 뒤 연결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해 계좌에 담긴 돈이 비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형태로 차명계좌를 가려내고 있다. 특검팀은 비밀번호가 0000·1111 등 똑같이 돼 있는 단순한 계좌, 뭉칫돈이 10억원 이상 입금돼 있고 1억원 단위까지 모두 인출된 계좌, 삼성관련 주식만 거래한 계좌, 배당금을 바로 출금해 간 계좌 등이 실제로 차명계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중점 추적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로부터 삼성 전·현직 임직원 200여명명의로 된 480여개 계좌를 넘겨받은 뒤 연결계좌를 확인하는 한편, 추가 수사를 통해 의심스런 계좌를 더 확보해 현재 3천700~800여개까지 추적 대상계좌 범위를 넓힌 상태다.

특히 그룹 전·현직 임직원이 아닌 일반 계좌도 가족이나 친척, 지인 등의 명의로 된 또 다른 차명계좌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제일모직 전 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며, 오후에는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해 'e삼성' 사건의 피고발인인 김순택 삼성SDI 사장을, 비자금·차명계좌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최모 사장을 각각 출석시켜 조사한다.

/연합뉴스

美 사상 최대 규모 쇠고기 리콜 파문 확산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쇠고기 리콜 조치에도 불구, 문제가 된 쇠고기 상당량이 이미 학교 급식용으로 전달됐고 그 중 대부분은 학생들이 시식한 것으로 추정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미 농무부 관리들은 "리콜 조치된 쇠고기 중 약 3천700만 파운드가 학교 급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달됐고, 이들 중 대부분이 이미 식사용으로 소비된 것으로 믿고 있다"고 CNN과 AP 등 미 언론들이 1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현재 미 전역 약 150개 학군이 쇠고기 사용을 즉각 중단했고, 잭-인-더-박스(Jack-In-the-Box), 인-앤-아우트(In-N-Out) 등 패스트푸드 체인점 두 곳도 리콜 대상 기업인 홀마크/웨스트랜드사 제품 사용중단 계획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 미 소비자들은 위험한 쇠고기가 광범위하게 유통됐을 가능성과 자녀들 학교급식에 사용되지 않았을까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바마, 파죽의 10연승

美대선 위스콘신·하와이 경선 힐러리 꺾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19일(현지 시각) 위스콘신주 프라이머리(예비경선)에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경쟁자인 힐러리 클린턴 의원을 누르고 승리, 파죽의 10연승을 기록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오바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출생지인 하와이에서도 무난한 승리를 거둬 지난 5일 '슈퍼 화요일'이후 무려 10연승을 달성, 미 전역에서 불고 있는 '오바마 돌풍'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바마는 또 대의원 확보와는 전혀 무관한 워싱턴주의 뷰티 콘테스트(일명 미인대회)에서도 50% 대 47%로 리드를 유지했다. 반면 공화당은 최근 급상승세를 타고 있는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위스콘신과 워싱턴주에서 마이크 허커비 아칸소 전 주지사에게 연승을 거두었다.

개표가 75% 가량 진행된 이날 오후 11시 30분 현재 오바마는 위스콘신에서 58%의 득표율을 기록, 41%에 그친 힐러리 의원에게 큰 표차로 승리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는 박빙의 시소게임을 벌이고 있는 힐러리 의원과의 경선전에서 극적인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물론 힐러리 의원은 총 74명의 대의원이 걸린 위스콘신주 예비경선에서 당초 예상보다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 442명의 대의원이 걸린 3월 4일 '미니 슈퍼화요일'에서 대역전극을 노릴 수 있는 동력은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두 주자는 '미니 슈퍼화요일'인 내달 4일 실시될 텍사스와 오하이오주 경선이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판단, 위스콘신 경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현지를 방문해 대규모 집회를 갖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쳤다.

오바마는 텍사스주 휴스턴 연설에서 "나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유일한 민주당 주자"라면서 "매케인은 베트남전 영웅이지만 조지 부시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이라크전을 지지하는 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힐러리와 매케인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에 대해 힐러리는 "나는 단순히 말만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현안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마한 것"이라며 오바마를 공격했다. 힐러리는 그러나 이날 '오바마 돌풍'을 저지하는데 실패함으로써 3월4일 미니 슈퍼화요일 격전지에서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CNN은 오바마는 지금까지 대의원 1천294명을 확보했고 힐러리는 1천234명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에서 매케인은 위스콘신과 워싱턴주에서 각각 54%와 48%의 득표율을 기록, 37%와 21%의 허커비에게 압승을 거두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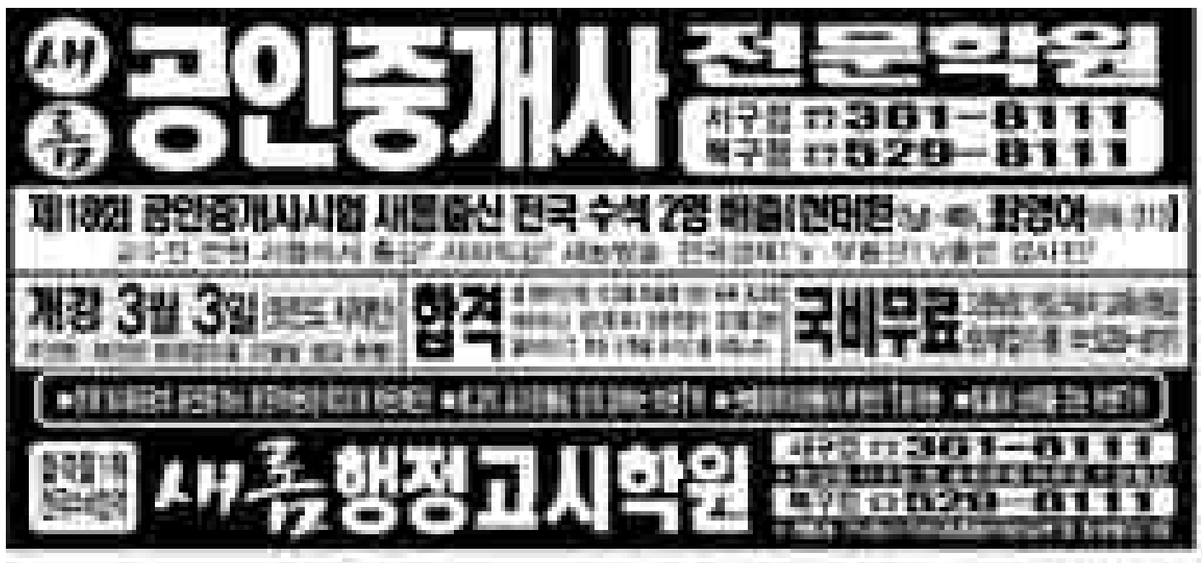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일리노이주)이 19일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의 라 플라사 데 과달루페에서 지지자들을 상대로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막후 권력 건재…현 체제 큰 변화 없을 듯

카스트로 사임 이후 쿠바

반 세기 동안 쿠바를 지배해온 독재자 피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19일 공식 사임을 발표한 이후 쿠바의 향후 정국 전개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일단 카스트로 의장이 권력에서 물러난다고 해도 그가 살아있는 한, 현 체제에 큰 변화가 있으리란 기대는 섣부르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특히 카스트로 의장의 악화된 건강이 오히려 그에게 권력 이양의 '연착륙'을 가능케 하는 과도기를 부여해줬다는 점에서 '축복'일 수 있다는 진단마저 나온다. 그러나 카스트로 의장의 유력한 후계자로 떠오른 동생 라울이 실제 국가평의회 차기 의장직에 오르기까지는 불확실성과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카스트로 의장의 사망시까지 막후 권력이 건재한 상황이 이어지리란 것이라고 영국방송 BBC 인터넷판이 19일 보도했다. 반면 그가 구축한 권력이 내부 쿠데타 등에 의해 전복될 가능성은 가장 희박한 축에 속한다.

수 개월간 카스트로의 와병기를 지켜본 한 서방 외교관은 "카스트로의 병은 쿠바 현 정부에게는 매우 다행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카스트로 의장의 병이 그를 죽이지는 않았다는 것. 따라서 그의 후계자는 갑작스런 그의 죽음이 정부에 미칠 충격을 피하고 미래를 준비할 여유를 갖게 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향후 쿠바는 점진적인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